

초기 유입과 정착 과정에서의 영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한국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비교연구 : 기독교 선교적 함의

김아영* · 권지윤**

I. 들어가는 말

II. 이주의 시대

III. 영국과 한국에서의 이주 무슬림 유입의 역사와 그 특징

IV. 이주 무슬림의 현황

V. 결론을 대신하여: 영국과 한국의 이주 무슬림 역사와
현황 비교분석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대학교 선교학과 부교수

** 한국이슬람연구소 부소장

■ 한글초록

다양한 이유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민족적 배경의 이주민들이 이주노동자, 유학생, 주재원, 난민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 중 특별히 무슬림 난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종교적으로 특징지어지면서 한국인들의 배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보다 몇 세대 전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여전한 사회 문제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담론에서 언제나 타산지석의 예로 등장한다. 본고에서 저자들은 영국과 한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초기 유입과 정착과정에 나타난 특성을 비교 연구하면서 한국 사회가 밭지 말아야 할 전철의 진정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의 공통의 노력이 있어야함을,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한 선교적 함의를 찾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영국의 무슬림 이주민,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 유럽의 이슬람, 한국의 이슬람, 이슬라모포비아

I. 들어가는 말

오랜 세월동안 단일 문화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오던 한국 사회가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정 종교적, 민족적 배경을 지닌 외국인들에 대해 갖게 된 거부감은 2018년 예민 난민들의 제주 입도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역사적으로 충돌과 지배, 피지배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국가들과 해당 국가 출신 외국인, 교포들에 대한 반감에 국한되었던 이러한 거부감이 역사적으로 아무런 갈등의 경험 없이 없었던 아랍, 혹은 아시아 지역 출신 무슬림들에게로 확산되고 극대화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에는 환대와 사랑을 실천해야하는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수의 제자된 삶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 사이의 신학적 모순을 숙고할 새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여과되지 않은 거부감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논리들 속에는 일찍이 무슬림 이민족의 유입과 정착, 갈등의 과정을 겪고 지금도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어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영국을 비롯 유럽 국가를 예로 들어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¹이라는 근거 없는 신념과 정당성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예멘으로부터 약 500여명의 난민이 제주도로 입도한 이후 4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 소수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았고 다수는 여전히 해마다 거주 신분을 갱신해야하는 인도적 체류 신분으로 임시적 거주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난민으로서의 미래가 없

1 <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7>

는 대한민국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탈레반에 의해 재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특별 기여자”들이 특별기로 한국 으로 수송되기도 하였다. “특별 기여자”라는 수식어로 인해 입국 시 예멘 난민 때와 같은 심각한 반대는 없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이 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정착의 과정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또 다시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들과의 공존을 거 부²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 히 진행중임을 보여 주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미전도 종족”³인 무슬림 난민들을 포함한 이주민 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실천이 증가된 이후에도 무슬림 이주민 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선교학적으로 분명히 재고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자들은 한국에서 이슬람 과 관련된 담론에 언제나 타산지석의 예로 등장하는 유럽, 특히 영 국 이주 무슬림들의 초기 유입과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 제로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가 밝지 말아야 “전철”이 무엇인지를 확 인해 보고자 한다.

II. 이주의 시대

UN이 2015년에 발표한 국제 이주 보고서에 의하면 21세기의

2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741309925>

3 이와 관련하여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김아영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아영, “우리 안의 미전도종족으로서 한국의 이슬람,” 『목회와 신학』, 2013.

첫 15년간 전 세계의 이주자 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1억7,300만 명이었던 전 세계 이주민 인구가 2010년에는 2억2,20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억4,4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⁴ 또한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발표한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국제 이주민 수는 2019년 현재 2억7,200만 명으로 2010년 2억2,200만 명에 비해 23% 증가했다.⁵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인구 증가율 11%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이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도 2.8%에서 3.5%로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 시대를 가히 “이주의 시대”로 특징지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발적, 비자발적 이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중에서도 특별히 최근 들어 비자발적 이주에 해당하는 난민의 발생이 폭증하고 있다. 2010년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 혁명의 여파와 뒤이은 2011년의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2014년 소위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의 등장으로 인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다수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일시에 유럽으로 유입되므로 인하여 이 문제가 더 이상 해당 국가나 인근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하는 전 지구적 이슈임이 입증 되었다.⁶

4 김아영, “십자가의 환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무슬림 난민 사역,” 『선교신학』 58호,

5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a/estimates2/estimates19.asp>

6 김아영, “권두언,” *Muslim-Christian Encounter* 9-1 (2016), 6.

1. 유럽에서 증가하는 무슬림 이주민

이러한 상황 속에서 21세기 들어 유럽의 무슬림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0년마다 약 1%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0년대에 4%에 지나지 않았던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2010년에는 6%로 증가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현재의 6%인 유럽 전체의 무슬림인구가 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인의 출산율이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유럽의 무슬림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럽과 아라비아를 합성한 ‘유라비아(Urabi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럽의 이슬람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⁸ 북반구의 도시들에서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주에 의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주 집단과 원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그들 간의 차이점이 감소하고 포용력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동화가 일어난다. 반면에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면 차이점은 악화되고 적대감이 증가하여 도심 환경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혐오 범죄의 소식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⁹

7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7/19/5-facts-about-the-muslim-population-in-europe/>

8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韓國中東學會論叢, 第31-1號(2010), 108.

9 미셸 포코크 외 지음, 박병환 외 옮김, 『변화하는 내일의 선교』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8), 68-69.

이러한 가운데, 2016년 6월 영국인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면서 현재 브렉시트(Brexit)는 현실이 되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한 달이 지난 후 세계 주요 언론은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에 찬성하게 된 이유를 ‘이민자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EU가 2015년부터 시리아, 이라크에서 몰려드는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강제 할당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브렉시트의 여러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영국인들과 무슬림 이민자들과의 갈등이라는 해석이다. 영국인들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납세, 교육 등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며 이슬람 율법 자치구를 요구하자 이들과 공존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영국이 그간 추구해왔던 다문화주의가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부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2010년대에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수많은 테러리즘을 통해 현실화 되었다. 그동안 관대함을 엘리트적인 가치로 여겼던 서유럽 국가들에 의해 난민과 이민자로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서유럽 주류문화에서 배제되어 온 무슬림들이 IS의 성립과 활동에 고무되어 그간 쌓여 온 불만과 갈등을 폭력과 테러리즘으로 표출된 것이다.

영국사회에서 이슬람포비아적 분위기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9.11테러’와 ‘런던테러’를 겪으면서이다. 특별히 2005년 7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런던테러의 주범들이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평범한 무슬림이민 2세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은 영국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¹⁰ 이 후로 2017년 5월 맨체스

10 정희라,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이민자와의 갈등의 원인,” 영국연구, 제 19호(2008), 175.

터 테러가 일어나자¹¹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타문화, 타종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영국에서 무슬림여성들의 히잡 착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정부의 무슬림 학교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어났다. 계속되는 유럽의 이슬람테러문제, 무슬림 이주민 2,3세대의 주변화, 무슬림난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영국에서 무슬림에 대한 경계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고조되면서 이슬람은 새로운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의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¹² 9.11 테러 직후의 미국에서와 같이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반감은 전체 이민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외국인 혐오증을 일컫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이슬람공포증(Islamo-phobia)가 더해져 지속적인 갈등 요소로 자리 잡았다.

2.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 현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 무슬림 수의 증가세를 보면 2001년 34,000명에 지나지 않던 무슬림 수가 2010년을 넘어서면서 10만 명 가까이 증가하여 약 30%의 증가율을 보였다.¹³ 이러한 증가세는 물론 1990년대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이주 무슬림들의 한국으로의 유입이 활발해 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꾸준한 증가세로 2017년 현재는 약 15만 명이 넘는¹⁴ 무슬

11 2017년 5월 24일 “조용하고 공손하던 대학생이 왜? 맨체스터 테러범 신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AKR20170524058500009.HTML?input=1195m>

12 정희라,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이민자와의 갈등의 원인,” 161.

13 Jeeyun Kwon,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of Islmic Da’wah in the Non-muslim world: Its Misslological Implications for Christians in Korea,” *Ph, d diss.*,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2014), 150.

14 김대성, “영국과 독일의 무슬림 인구의 현황과 이주민 정책,”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인과 무슬림의 결혼으로 인하여 생성된 코스림(Koslim)¹⁵들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에도 이주 무슬림의 증가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체류 중인 무슬림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단으로 유입되는 무슬림 난민의 경우 난민 신청서에 종교를 기재하는 난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 당국에서 별도로 종교별 난민 신청자 수의 통계를 관리하여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무슬림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는데 외국인의 경우 종교별 인구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한 국회의원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수는 약 40만 명으로 이는 8년 사이 90배가 증가한 수치”¹⁷라는 근거 없는 발표를 통하여 이슬라모포비아를 부추기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는 개인의 상상력의 결과일 뿐이다. 국내 거주 무슬림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이슬람 회의 기구(OIC) 57개국 및 동남, 남부아시아의 일부 국가를 포함한 총 65개국 출신의 합법 및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해당 국가의 무슬림 비율을 적용해서 국내 총 무슬림 숫자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추정된 국내 거주 무슬림 수는 2008년 현재 80,676명으로 이는 한국 이슬람중앙회서 발표한 추정치 8만과도 유사한 수치이다.¹⁸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 무

20집(2010),67.

15 Koslim: Korea와 Muslim의 합성어로 명지대 조희선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16 이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 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87.

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0009>

18 조희선,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Muslim-Christian Encounter*, 3-2 (2010), 95-97.

슬림 인구수는 외국인 11만 명, 내국인 4만 명으로 총 15만 명이다.¹⁹

한계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의 종교증가세를 예측하여 본 결과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2010년 전체 인구의 0.2%에서 2050년 0.7%선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로 보면 2010년 기준 10만 명에서 2050년에는 약 34만 명으로 3.4배 증가한다는 것이다.²⁰ 그 추산이 맞는데 해도 전인구 대비 무슬림인구는 여전히 소수이지만 한국의 경우도 영국처럼 무슬림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도나 2021년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하여 재장악됨으로 인해 “특별 기여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등의 예는 그 가능성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이주 무슬림 유입과 현황, 그 특징에 대한 검토는 한국에서의 무슬림들의 유입과 정착의 양상이 유럽, 특별히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 시민 사회 속으로 동화되어 감으로 비극적인 분열과 갈등의 결과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주 무슬림 2, 3세대가 우리사회에서 주변화 될 경우 사회적 불안요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주역사가 깊으며 그 만큼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의 사례를 이주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이주 무슬림과 비교하는 것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²¹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영국의 무슬림 유입 역사와 특징, 이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한국과 어떤 공통점과 차

19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p.122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

20 <http://plug.hani.co.kr/futures>

21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109.

이점이 있는 가를 비교해보고,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이주 무슬림 공동체를 먼저 경험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의 이주 무슬림들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한국인들과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선교적 차원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Ⅲ. 영국과 한국에서의 이주 무슬림 유입의 역사와 그 특징

1.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이주 무슬림의 유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신 영연방(New commonwealth) 이민의 흐름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후 본격적인 무슬림 이주가 시작되기 전인 1889년 워킹(Working)에 영국 최초의 모스크가 건립되어 무슬림들의 정신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1890년대에 더 크레센트 (The Crescent)와 이슬람 세계(The Islamic World)와 같은 이슬람 잡지가 발행되어 전 세계 무슬림들의 소식이 전하며 이주 상황 속에서 무슬림들의 정체성과 세계 무슬림 공동체와의 일체성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²²

1914년 이전까지 영국에 왔던 무슬림들은 식민지 시대, 친 영국을 선택한 무슬림 지도자들의 2세가 서양식 교육을 받기 위한 이주이거나 이슬람부흥주의자들의 일시적인 이주, 식민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이주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다시 영국의 식민지인 본

22 정희라,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 이민자와의 갈등의 원인,” 165.

국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라스카(lascar)²³라고 불리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출신의 무슬림 선원들과 예멘 출신의 무슬림 선원들이 19세기 말부터 런던, 카디프, 리버풀 등 항구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영국으로의 이주와 정착이 시작된 것은 제 2차 세계 대전이후로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영국 국적법은 영 연방 이민자들에게 영국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허용하였다. 영국이 이렇게 느슨한 국적법을 채택한 것은 식민지에 살고 있던 백인 국민들이 영국으로 귀환할 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애초 의도와는 달리 신 영연방 국민들은 보다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혹은 자국의 정치 상황을 이유로 영국으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한 식민지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었다.²⁴ 특히 1947년, 종교적 분쟁으로 이루어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는 무슬림들의 영국행을 가속화시켰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파키스탄으로 이주해야하는 인도 편잡 지역에 거주하던 무슬림들과 아삼지역에 거주하던 벵골 출신의 무슬림들이 파키스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제공되는 영국행 이주를 선택한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노동력이 부족하였던 대도시 근교의 식당이나 공장 직물산업의 본거지였던 미드랜드 요크셔, 랭커스터 등의 산업도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온 무슬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²⁵ 특이한 점은 서인도 제도 출신의 이민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민을 온 것과 달리 남 아시아

23 Ibid.

24 Ibid, 111.

25 정희라,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이민자와의 갈등의 원인,” 166-167.

계 이민자들은 친족 공동체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의 한 친족 공동체가 이민을 결정하면, 먼저 돈을 모아 한 남자 구성원을 영국에 보내고, 이후 그가 돈을 벌어 차례로 친척들을 영국으로 초청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연쇄이민(chain immigration)을 통해 남 아시아계 무슬림 공동체는 영국에서 급격히 성장하였다.²⁶

1962년 이민법으로 이민규제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연쇄이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진 남 아시아계 무슬림 이민자들의 가족 재결합은 이들의 이슬람 정체성 형성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정희라는 로즈의 말을 빌어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즈(E.J.B, Rose)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 초창기 파키스탄 남성 이민자들이 가족 없이 홀로 생활 할 당시에는 종교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도하는 이가 드물었고, 코란을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었으며, 모스크에 나가는 경우도 아주 드물었다.” 그러나 가족 재결합이 이루어진 뒤 종교적 복종이 가족 및 친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면서 무슬림 이민자들의 종교적 색채가 강해졌다.²⁷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경제위기로 영국 정부는 강력한 이민법을 실시함으로써 남 아시아계의 새로운 이주를 규제하였으나 이 전 시기의 영향으로 영국 이주민들 중 남 아시아계 이주 무슬림

26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111.

27 Ibid,

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파키스탄계 무슬림들이 브렉토포드와 버밍햄에 주로 거주하면서 거의 모든 이슬람 종파들을 대표하는 성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계 무슬림은 런던의 동부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가족이민을 통하여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영국에서의 대표적인 무슬림 지역으로 남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일부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아프리카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곳에 있던 인도 무슬림들이 온전한 가족 형태로 영국으로 망명하였다.²⁸ 1990년대에는 보스니아와 코소보로부터 피난 온 동유럽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터키, 이라크 등으로부터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안이 불안한 중동의 여러 이슬람국가로부터 무슬림들이 더 나은 경제적 혜택과 안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로 이민이 증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대의 아랍 시민 혁명과 그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랍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들로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영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유입되는 무슬림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실제로 무슬림들이 한반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9세기 신라시대에 페르시아계 상인들이 드나들면서이다. 고려시대에도 개경에 예궁이라고 불리던 무슬림 상인들을 위한 기도처가 존재했고 조선시대에도 무슬림 상인들이 궁정의 연회에까

28 Ibid.,

지 탐색한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사라센 상인들과의 교류로 보아
 야지 무슬림들과의 종교적 교류로 보기는 어렵다.²⁹ 따라서 1950년
 대 전까지는 무슬림들이 한반도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만 간헐
 적인 접촉만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무슬림들의 본격적인 정
 착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을 겪으면서 종군 이맘으로 한
 국에 온 터키인 쥬베이르³⁰를 통해서이다. 이때부터 이슬람이 한반
 도 땅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정착되기 시작하였다.³¹ 이후로 1980
 년대 말까지 한국 이슬람 공동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였으
 나 그 공동체의 성격은 현재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까지 한국의 무슬림공동체는 이주민 무슬림보다 내국인 무
 슬림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현재와 많은 차
 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의 노동시장 개방으
 로 인한 산업연수생 제도, 한류 열풍 등을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조희선은, 이 시기에 국내에 들어온
 산업 연수생들이 주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출신이
 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무슬림 이주는 산업 연수생의 유입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³² 산업 연수생들은 계
 약기간까지 국내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본국
 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시기 많은 산업연수생들이 본
 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사람

29 김아영, “한국이슬람의 시작과 발전,” 키스 스와틀리 엮음, 정옥배, 김보람 옮김, 『인 카운터 이슬람』, 서울: 좋은 씨앗, 215.

30 2010년 5월 사망, Ibid., 216.

31 한국 이슬람 공동체의 성립과 발전 역사를 위해서는 Ah Young Kim, “The Muslim Presence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vangelical Missiology.”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ugust 2003.를 참고하라.

32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114.

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근무하였다. 조희선에 의하면 이슬람국가에서 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생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³³하여 국내 무슬림 공동체의 부피가 커지는 데 기여를 하였으나, 21세기로 전화되는 시기에 다수의 undocumented, 즉 불법체류이주 노동자들은 정부에 의해 출국 조치되었다.

이렇게 본격화된 이주 무슬림의 유입은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 그리고 국내 여성들의 농촌 거주 남성과의 결혼 기피라는 사회적 현상, 한류 열풍, 대학들의 국제교류로 인한 이슬람 국가 유학생 유치 등의 원인으로 그 유입경로가 다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을 통한 이주는 특히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배경 국가의 여성들의 이주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렇듯 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앞서 살펴본 영국의 무슬림 유입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오종진은 무슬림 여성이 이교도인 한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타 지역 여성 무슬림들과 구별되는 중앙아시아 출신 무슬림 여성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³⁴ 한국의 경우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영국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정착해서 가족의 연쇄 이주를 주도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동시에 다문화 가정 및 이민 2세대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결혼으로 인한 이주의 경우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다양하다. 이 경우 무슬림과 결혼한 배우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무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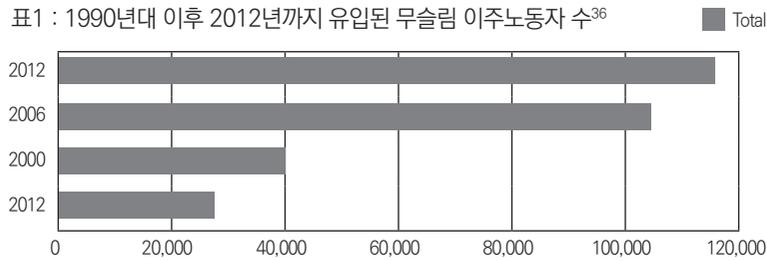
33 Ibid.

34 오종진,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 (2009):267.

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무슬림 어머니들에 의해 무슬림으로 길러지는 코슬림들이 증가되어 결혼으로 인한 이민이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는 한국 무슬림 수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희선은 한국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결국은 영주권 및 국적관련 정책이 완화되어 이주민 노동자를 수용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³⁵ 이러한 전망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의 상황을 고찰해 볼 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이 사회 문제화 되기는 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합법적인 이주의 길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무슬림 이주 노동자 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슬람 지역에서의 분쟁들과 종교, 기후 문제 등으로 인한 지속적 난민의 발생으로 한국의 이주 무슬림 인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한국에 정착하게 된 무슬림들의 2세들도 국내 이주 무슬림 인구 증가의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1 : 199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유입된 무슬림 이주노동자 수³⁶



35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114-115.

36 2012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IV. 이주 무슬림의 현황

1. 영국이주 무슬림의 현황

영국 통계청은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중 종교 인구를 성별, 인종 배경, 출생지 별로 세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영국인구 중 본인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여 여전히 영국에서 가장 큰 종교의 자리를 지키는 했지만, 2001년 조사 때보다 신자 수가 10%, 약 410만 명이 감소했다.³⁷ 반면에 2017년 무슬림은 270만 명(5%), 종교가 없는 인구는 1410만(25%)으로 집계돼, 2001년 조사 때보다 각각 120만 명, 640만 명 증가했다. 특히 25세 미만 영국인 10명 중 1명이 무슬림일 정도로 무슬림 인구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외국 태생 이민자 60만 명 이상이 보태준 수치다.³⁸

현재 영국의 무슬림은 영국전체 인구의 약5%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33%가 15세 이하의 젊은 종교이다. 이들 중 68%가 아시아계로 출신국 별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이주자들이며, 8%의 백인계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중동, 기타 무슬림국가 출신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무슬림들 중 47%만이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이며, 약 36%는 중동이나 아시아로부터 이민 온 무슬림들로 이들은 영어사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한다.³⁹ 전체 무슬림 인구 중 약 37%

37 <http://www.c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9>

38 <http://www.maozrael.org/site/News2?id=10967>

39 <http://www.bbc.com/news/uk-31435929>

만이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무슬림들이 직업을 찾기 쉬운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거주를 선호하고 있지만, 동시에 1세대 무슬림들이 이미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는 곳을 연쇄이민을 통해 들어간 후속 세대 무슬림들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존 무슬림들의 집단 거주지는 후속 무슬림 이주민들에게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영국에서 대도시와 무슬림들의 전통 거주지 사이에 분리 거주 현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미 무슬림들의 집단 거주지가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직업과 관련하여 영국 무슬림들은 일반 영국인들과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20%정도만이 안정적으로 full-time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영국 국민의 35%가 full-time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할 때 적은 수치이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무슬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서 높은 실업률로 인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에서와 같이 지난 2001년 무슬림들의 실업률은 기독교인들의 실업률에 비해서 3.4배, 유대인의 실업률보다 3.8배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슬림들 가운데 빈곤계층이 많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⁴⁰ 이러한 비율은 현재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매체의 보도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BBC의 흥미 있는 실험에 따르면, 영국식 이름과 이슬람식 이름을 사용해 100개의 직장에 구직서를 넣어본 결과 스펙이나 경력이 같아도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

40 김대성, “영국과 독일의 무슬림 인구의 현황과 이주민 정책,” 70.

다. 영국식 이름으로 보낸 이력서에는 12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으며, 이슬람식 이름으로 보낸 곳에서는 4곳의 인터뷰 요청만이 있었다. 이름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영국식 이름이 이슬람식 이름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⁴¹ 영국사회가 이슬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차별적으로 고용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로 영국을 비롯, 유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무슬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표2: 종교별 실업인구와 비율⁴²

| | 경제활동인구 | 실업인구 | 실업비율 |
|------------|------------|-----------|-------|
| 전체 | 25,022,204 | 1,261,343 | 5% |
| 기독교 | 17,789,648 | 772,438 | 4.3% |
| 무슬림 | 487,792 | 71,415 | 14.6% |
| 유대교 | 120,903 | 4,623 | 3.8% |
| 힌두교 | 285,124 | 15,491 | 5.4% |
| 불교 | 78,545 | 6,236 | 7.9% |

2.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현황

2012년 말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된 연보를 통해서 국적별 국내 체류 무슬림 수를 추정해 보면 표 3과 같다.

41 <http://www.bbc.com/news/uk-31435929>

42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

표3 : 국내 무슬림 체류현황 (2012년 12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 | Total Residents | Legal Residents | Illegal Residents | Illegal Residents as Percent of Total |
|-----------------|-----------------|-----------------|-------------------|---------------------------------------|
| Arab | 4,888(5%) | 4,099 | 789 | 16% |
| Non-Arab | 2,195 (2%) | 1,354 | 841 | 38% |
| Central Asian | 40,736(36%) | 34,946 | 5,790 | 14% |
| South Asian | 23,611(20%) | 15,769 | 7,842 | 33% |
| Southeast Asian | 41,836 (37%) | 35,404 | 6,432 | 15% |
| Total | 113,266 | 91,572 | 21,694 | 19% |

표3에서 보듯이 2012년 현재 동남아시아계가 국내 체류 전체 무슬림 인구의 36%, 중앙 아시아계가 35%, 남아시아계가 20%로 국내 체류 무슬림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 아랍계와 아랍계가 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출신의 무슬림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란이나 터키, 아랍국가 출신의 무슬림보다 국내에 더 많이 거주한 결과이다. 조희선은 이러한 결과가 이주 노동자 유입 초기에 한국정부에서 산업 연수생제도를 이들 권역에 있는 나라들과 체결하여 아시아 무슬림의 한국 이주에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⁴³ 또한 한국 이주 무슬림이 영국과 다르게 특이한 점은 결혼으로 인한 이주 현상을

43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119.

들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한국 여성들이 농촌 거주 남성들과의 결혼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내 여성과 결혼을 하지 못해 외국인 신부와 결혼하게 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대표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를 보면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출신 한국 거주 무슬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여성과의 결혼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

표4 :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체류자 증가표
(2009-2012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자료)

| | 2009 | 2010 | 2011 | 2012 |
|------------------------|--------|------------------|--------------------|--------------------|
| Uzbek residents | 21,249 | 25,895 (17%+) | 29,742 (12.9%+) | 34,688 (14.2%+) |

한국의 이주 무슬림들은 영국의 이주 무슬림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역사가 짧고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영국의 경우와 달리 연쇄 이주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한 영구 이주가 아닌 경우 한국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웃 나라인 일본에 비해서도 무슬림 이주자의 영구 정착률이 떨어진다.⁴⁴ 뿐만 아니라 결국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유입되는 노동 이주자

44 이희수 외, “무슬림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슬람 문화 실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3-1집(2013), 93.

수와 돌아가는 수가 맞물려있으며, 결혼으로 영구 정착하는 비율도 소수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영국과 한국의 이주 무슬림 역사와 현황 비교분석

영국의 무슬림 이주역사는 18세기 영국이 이슬람국가들을 식민통치했던 시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길다고 볼 수 있다. 긴 역사의 이주만큼이나 무슬림공동체 규모 또한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13년 당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이슬람 채권 수크크의 도입을 승인하며 “런던이 전 세계 샤리아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불과 수개월도 되지 않아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버밍햄 지역의 학교들에서 샤리아의 실시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전역이 패닉에 빠지는 상황도 발생하였다.⁴⁵ 무슬림 이주와 정착의 역사가 길고 공동체의 규모가 큰 만큼 영국 이주 무슬림들이 직면한 문제도 다양하고 많다. 이주 무슬림들이 대도시에서 분리되어 거주하고 무슬림 집단촌 형성으로 인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실, 높은 실업률, 무슬림 2.3세의 주변화, 언어 구사력의 미비 등이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영국 내 무슬림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개선에 장애요인으로서 무슬림들의 원만한 사회통합

45 John R. Bowen, *On British Islam: Religion, Law and Everyday Practice in Shari'a Counci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3.

을 위해서 장 단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⁴⁶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에서도 영국의 무슬림 수는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다. 따라서 지금 이대로라면, 영국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더 발전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만 이주 무슬림들로 인하여 생성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슬림들이 영국사회안에서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깊이 인식되고 정착되는 것은 무슬림과 비 무슬림 영국인 모두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속되는 유럽에서의 테러리즘으로 이슬라모포비아적 분위기와 이에 대한 반작용의 반복으로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영국 사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영국의 이주 무슬림역사가 식민지배의 관계 속에서 비자발적 이민으로부터 시작했다면, 한국은 자발적인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작점에 있어서는 갈등의 요소가 적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에 비해 무슬림 이주역사가 짧으며 그 만큼 최근까지도 전인구 대비 무슬림공동체의 규모도 작다. 따라서 한국의 무슬림들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만큼 가시화된 사회적 차원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주 무슬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배타적인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다. 종교적 의무를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종교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복장으로 인해 여성들의 취업도 용이하지는 않다.⁴⁷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차

46 김대성, “영국과 독일의 무슬림 인구의 현황과 이주민 정책,” 87.

47 김아영 (2020), 55.

원에서 무슬림공동체와 비 무슬림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킬만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살해되거나 피랍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한 이슬람포비아 분위기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와 교회와의 문제만은 아니고 무슬림 이주역사가 긴 유럽과 북미주에서도 여전한 현상이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를 미리 학습한 한국인들이 심지어 난민으로 온 초등학교생들에게서도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멘 난민들의 입도 이후 한국 사회가 보여준 현상을 분석한 알 자지라 지의 보도대로 한국인들이 무슬림들과 더불어 살아본 경험이 없고 이슬람과 무슬림들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왜곡된 것에서 기인한다.⁴⁸

한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는 영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으며,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갈등의 요소도 없다. 유일한 유사점을 찾는다면 영국의 이주 무슬림들이 사회적 문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한국의 배타적인 이민법이나 고용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꾸준한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영국 이주 무슬림들이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갈등을 한국 사회가 그대로 따라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같은 종교적 변수를 가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가 같다 하여도 그 처한 환경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 내

48 "How Islamophobia is driving anti-refugee sentiment in Korea" *Al Jazeera*, 2018.8.14.,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slamophobia-driving-anti-refugee-sentiment-korea-180813062317079.html>

에서 영국에서와 같이 공적인 장에서의 샤리아 법의 실시와 극단주의에 대한 지지 등이 일어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리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슬림의 증가와 확산을 두려워하고 적대시하여 무슬림집단과 비 무슬림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현재 무슬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무슬림집단과 비 무슬림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들을 분석하여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관용의 정신을 먼저 실천했던 유럽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이주 무슬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시급하다. 정부와, 시민사회와 교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바삼 티비가 그의 책 *Political Islam, World Politics and Europe*에서 강조한 것처럼 무슬림집단과 우리사회가 사회통합을 위해서 상호간에 교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티비는 유럽사회가 무슬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유럽사회의 문을 여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위의 책에서 강조한다. 즉 비 무슬림 영국인들이 무슬림들이 단순히 영국 문화에 동화(assimilation)되기보다는 영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통합(integration)되기를 기대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슬림들도 영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문을 열고 무슬림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시민으로서 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⁴⁹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무슬림들이 난민으로, 이주 노동자로, 유학생과 주재원으로 끊임없이 한국을 찾아오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선교와 더불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삶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쉬가 *Transforming*

49 Bassam Tibi, *Political Islam, World Politics and Europe* (NY: ROUTLEDGE, 2014) 170-179.

*Mission*에서 선교가 사람과 문화를 통전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선교자체도 늘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선교는 무슬림들의 세계관과 신인식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팬데믹을 경험하고 역사가 퇴보하는 듯이 보이는 갈등과 명분 없는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의 기독교 선교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라는 지리적 경계선 너머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복음증거의 대상이듯 우리 안에 이웃으로 살아가는 무슬림들도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일 뿐이다.

본고의 서두에서 필자들은 영국의 예를 들어 이주 무슬림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밟지 말아야 할 전철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들은 공간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실패하고 이주민들을 거주국의 모든 영역에 통합하지 못한 것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밟지 말아야 할 전철임을 파악하게 되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인식과 태도 모두 상황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슬림들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이들”과 관련하여 유행처럼 논의되는 “환대”는 예전에는 “손대접”으로 번역 되었었다. 손님은 대접을 받고 떠나지만 이주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환대는 공간적 자리를 내어줌과 더불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줌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다. 팬데믹 이후의 선교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우리와 함께 있으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복음증거의 시급성(Urgency)을 발견하는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아영. “우리안의 미전도종족으로서 한국의 이슬람.” 목회와 신학, 2013.
- _____. “권두언”. *Muslim-Christian Encounter* 9-1 (2016), 6.
- _____. “십자가의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무슬림 난민 사역.” 『선교신학』 58호, 42-78.
- _____. “한국이슬람의 시작과 발전.” 키스 스와틀리 엮음. 정옥배, 김보람 옮김. 『인카운터 이슬람』. 서울: 좋은 씨앗
- 김대성. “영국과 독일의 무슬림 인구의 현황과 이주민 정책.”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0-2집 (2010):63-93.
- 미셸 포코크 외 지음. 박병환 외 옮김. 『변화하는 내일의 선교』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8), 68-69.
-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韓國中東學會論叢, 第31-1號, (2010): 105-149.
- _____.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Muslim-Christian Encounter*, 3-2 (2010), 95-97.
- 정희라. “영국의 문화전쟁, 무슬림이민자와의 갈등의 원인.” 영국연구 제 19호 (2008): 160-185.
- 안 신. “영국의 이주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9-20, (2009):135-158.
- 오영달. “다문화주의와 인권의 상호보완성과 갈등성: 영국 이슬람 공동체에 관한 일 고찰.” 유럽연구, 제32권 1호 (2014년 봄) :210-242.
- 오종진.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

- 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 (2009):257-293.
- 이 일. “한국 내 무슬림 난민의 현황, 난민 제도의 이해 및 한국 기독교 교회의 과제.” 87.
- 이희수 외. “무슬림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슬람 문화 실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24-2집(2014):81-124.
- Ah Young Kim. “The Muslim Presence in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vangelical Missiology.” PhD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ugust 2003.
- Bassam Tibi, *Political Islam, World Politics and Europe*, NY: Routledg, 2014
- Humayun Ansari. “Muslims in Britain.” *Minority right group International*, 2003
- John R. Bowen. *On British Islam: Religion, Law and Everyday Practice in Shari'a Counci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3.
- Runnymede Trust. *Islamophobia: A Challenge for Us All*, London, The Runnymede Trust, 1997.
- Jeeyun Kwon. “A Study on the Methodologies of Islamic *Da'wah* in the Non-muslim world: Its Missiological Implications for Christians in Korea,” Ph.d diss.,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2014.
-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7/19/5-facts-about-the-muslim-population-in-europe>
-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07/19/5-facts-about>

-the-muslim-population-in-europe/

2017년 5월 24일. “조용하고 공손하던 대학생이 왜? 맨체스터 테러범 신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

[AKR20170524058500009,HTML?input=1195m\(2017년](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4/0200000000)

<http://plug.hani.co.kr/futures>

<http://www.c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

<http://www.maozrael.org/site/News2?id=10967>

<http://www.bbc.com/news/uk-31435929>

<http://www.statistics.gov.uk/census2001>

“2019년 국제 이주민 현황”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

[data/estimates2/estimates19.asp](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migration/data/estimates2/estimates19.asp)

<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7>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74130992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380009>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p.122 [https://www.mcst.go.](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

[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

[DataCD=0406000000](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731&p-DataCD=0406000000)

“How Islamophobia is driving anti-refugee sentiment in Korea” Al

Jazeera, 2018. 8. 14., [https://www.aljazeera.com/indepth/](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slamophobia-driving-anti-refugee-sentiment-korea-180813062317079.html)

[features/islamophobia-driving-anti-refugee-senti-](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slamophobia-driving-anti-refugee-sentiment-korea-180813062317079.html)

[ment-korea-180813062317079.html](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islamophobia-driving-anti-refugee-sentiment-korea-180813062317079.html)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Processes of Muslim Communities in UK and Korea

Ah Young Kim · Jee Yun Kwon

As migration caused by various issues is on the rise, migrants of diverse ethnic backgrounds are also entering South Korea consistently as migrant workers, foreign students, expatriates, and refugees. In particular, Muslim refugees are characterized solely by their religion and have become targets of discrimination. Europea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which have experienced these trends generations before South Korea has, always appear as exemplary case studies during discussions of such issue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processes of Muslim communities into the UK and South Korea in an effort to identify aspects from our past to avoid repeating. By doing so, the authors propose that cooperative efforts between Koreans and migrants, and identifying the missional implications in them, are necessary for migrant

Muslims to become a member of Korean society.

Keywords: Muslim Migrants in the UK, Muslim Migrants in Korea, Islam in Europe, Islam in Korea, Islamophobia